

다산포럼



김승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화학회 회장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은 어디에?

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밀어 붙였다는 폭로와 녹취가 나오고 있다. 임 사단장은 2022년 여름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때 상륙용 장갑차를 이용해 주민 27명을 구하는 성과를 올렸고, 오전 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여 능력을 인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관심을 기울여 구조활동을 펼치는 해병대원들의 사진이 잘 나왔다고 좋아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왔다. 병사들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공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심이 간다. 임 사단장 본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수사 결과, 7월 30일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마쳤다. 다음 날 사건을 경복경찰청에 이첩하고 언론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장관의 결재가 난 사안이기엔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단장은 8월 2일 경복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그러자 기겁한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첩했던 사건을 다시 찾아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축소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복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문제는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관련됐다는 것이다. 8월 2일 세계스카우트챔버리 대회가 혼란을 겪던 와중에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국방부장관과 무려 3차례 18분 40초나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대제 무슨 말들이 오갔을까? 통화 후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이첩된 사건이 회수됐으며 박정

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7월 31일 오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여 임 사단장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그 이후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바꾸지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이라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런데기자들이 "VIP 격노"에 대해 질문하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동문서답(東門西答)식 답변을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근들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의 탑'만 높아질 뿐이다. '거짓의 탑'은 진실 하나면 쉽게 허물어지는 사상누각이다.

다산(荊山)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書兩封)를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보아왔는데 비록 고관대작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을 공평하게 검토해 보면 열 마디 말 중 일곱 마디가 거짓이더라. 어렸을 때부터 서울거리에서 자라난 너희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습관에 잘못 묻든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경계했다.

과연 채 상병 죽음과 외압에 대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 지켜볼 일이다.

청춘 특독



박지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년

진정한 대화를 하라

대화란 무엇인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고찰이다.

고찰의 끝에 대화의 핵심은 '경청'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 귀를 닫아버리는 편이 훨씬 쉽고 편하니 말이다.

중중 자기 생각이나 반론을 준비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도 있다. 때론 귀를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며 그가 말할 기회를 가로채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빠르고 복잡해 피곤한 사회이기에 타인의 구구절절함 따위가 듣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나와 다른 의견은 얼른 반박하고 싶어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타인과 소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경청이다. 경청은 소통의 기초이자,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진정한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이해로 마무리된다.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귀 기울여도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포된 의도와 감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만든다.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나 습관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싶든 그 맥락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화는 쌍방향적이기에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화 중 표정과 몸짓, 눈빛으로 상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비언어적 소통은 기본적으로 경청을 바탕으로 하기에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대화의 본질이 된다.

단연 상대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가 마냥 옳거나 그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대화라는 근본적인 행위의 목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기 위함이며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자.

경청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의 침묵을 가진 뒤 말을 이어가자. 침묵은 경청에서 필수적 요소다. 몇 초의 침묵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되고 상대의 말을 정리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교류하기 위한 대화에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결국 서로의 이야기는 허공을 떠날 뿐이다.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충분히 연습해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작은 여유를 가지고 상대와 눈을 맞추는 과정이면 된다. 경청을 통해 진정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기고



송영희  
광주시 문화유산지원과장

새로운 K컬처의 원동력, 국가유산

찬한 '설원(說苑)'에 '무릇 무력이 흥하여 북중하지 않더라도, 문(文)으로 교화해도 바뀌지 않으면 그때 벌한다'는 기록이 전한다. 최근의 개념은 일본 메이지 유신기에 서양의 'Civilization'을 '문명' 또는 '문화'로 설명하면서 싹트기 시작하여 이내 인간 사유의 총체인 사상과 예술로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 즉 국가유산은 K-컬처의 기반이 되는 전통 문화의 정수이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은 전통과 국가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품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킹덤'은 좀비물이라는 세계적인 레퍼런스에 조선의 역사와 한옥, 복식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놀이문화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낸 영상과 음향을 결합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광주시의 문화유산 전담부서 설치와 그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타 지자체는 '문화유산과'라는 명칭이 대부분이나 광주광역시에는 국가유산 보존과 미래유산 발굴·활용을 위해 문화유산지원과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과 활용에 그치지 않고 광주만의 해석을 통한 재창조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적극적인 국가유산 활용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의 의지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문화력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문화력은 단순히 문화의 우수함만이 아닌 다양한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발휘되는 복합적인 산물이

다. 다시 말해 누구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문화를 뒷받침하는 경제인프라,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문화의식 등의 다양한 요소의 결과물이 문화력인 것이다. 또한 문화는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그 가치를 올리는 시너지 자원으로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척도이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도시는 첨단산업·인재육성과 함께 도시 문화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는 누구나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인프라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그간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축적한 문화력은 창설 30주년이자 15회째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다. 소리꾼이 판소리를 통해 일상의 삶과 애환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처럼 세계 30개국 73명의 작가들이 공간과 존재의 울림을 광주와 비엔날레라는 무대를 통해 화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조화를 표방하는 판소리 정신을 현대미술로 재현한다.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현대미술을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에 담아 창의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광주만이 할 수 있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함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을 갖기를 원했던 백범 김구의 바람이 오늘날 광주의 국가유산과 비엔날레, 시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社說

건축재정에 비상걸린 광주 교통 인프라 예산

광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신규 사업이 역대급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막대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데 정부의 건축재정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 현안은 모두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조원 규모다. 2030년까지 4조 5158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전역 경우노선 변경, 경전선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등이다.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사업만 하더라도 7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60%를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복합쇼핑몰 사업의 성공을 담담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난 해소가 관건이다. 산업단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

주산업선 신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1조 80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내년도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202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 하지만 쉽지 않다.

국비 확보의 선형 조건이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인데 교통 인프라 사업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비판적이다. 광주시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국비 확보 없이는 교통 인프라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건축재정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전쟁은 어느때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9개 사업에 모두 방점을 두기보다 우선순위에 따라 정한 뒤 집중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떠나 '원팀 정신'으로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5·18 가해자들 단죄하고 진실 철저 규명해야

정호웅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될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엊그제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호웅씨 등 계엄군 12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씨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 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된다. 이들은 1980년 5월 27일 상무중정작전 중 전남 도청, 광주공원, 광주YWCA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해 시민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1997년 5·18 관련 재판 당시 기소되지 않은 7명에 대한 살해 혐의가 새로 드러나 고발을 결정했다.

최웅씨를 포함한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9명은 집단살해(제노사이드)·살인·살인미수·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다. 이들은 1980년 5월 23·24일

외곽봉쇄작전 중 주민마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1 공수는 5월 23일 오전 9시께 서울로 향하던 마이크로버스(14명 탑승)가 접근하자 탑승자들이 항복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0여분 동안 무차별 발포했다. 이들 마을에서는 최소 30여명이 숨진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고발 결정에 따라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씨 등 산근부에 대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목적살인죄 재판 이후 27년 만에 5·18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당시 투입돼 직접 작전을 수행한 병사까지 고발 대상에 올라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44년 세월이 흘렀으나 5·18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이 으레된 5월의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無等鼓' (Mueungdo) featuring a table with '소한마리' (So Han Mari) and '소' (So) products. The table lists prices and details for various items, including '소한마리 797만 원' and '소 211.9% (86만 7000원)'. Below the table is a paragraph about the products and a call to action to contact '김지후 부장 dok2000@'.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featuring a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paragraph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journalism. The table lists the editor-in-chief '金汝松' and other staff members, along with contact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